

기후 정상 회의: 온실배출 목표 달성 박자 가해야!

2021.04.23.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세계 지도자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야심찬 행동을 공약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오염을 2005년 수준에서 50-52%를 감소하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지구의 날을 기해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이뤄졌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직에 오르는 즉시 파리협정에 재가입했고, 늦어도 2050년까지 미국이 배출량 순제로에 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는 또한 휘하에 국가기후테스크포스를 가동하여 조직하게 된 “범 정부 과정(a whole-of-government process)”을 발족함으로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 제출하게 될 2030년 배출가스목표 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새롭게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말>

“정후는 틀림없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게되면 비용은 계속 커집니다. 미국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방 정부는 물론, 우리 도시와 국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들 전체가 말이죠.”

“하지만 사실 미국은 세계 배출량의 1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도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특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최대 경제대국들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오는 2024년까지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후반기에 개발도상국에 대해 이뤄졌던 연례 공적기후재정 지원 규모를 그 평균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40개 국가들의 정부 지도자들은 보다 야심찬 정책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했고 완화와 적응 모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WMO가 4월 19일 발표한 “2020년 세계기후현황보고서“에 기록적인 온실가스 농도, 육상 및 해양 온도 상승, 해수면고도 상승, 빙하 융해, 빙하 퇴각, 극한 기상 등에 대한 걱정스러운 기후 지표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아울러 사회 경제적 발전, 이주와 이동, 식량 안보, 육지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WMO 간판보고서 발표회장에 함께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의 말이다.

“대자연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녹색 행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계는 적색경보 상태에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자 내놓은 약속을 환영하며, 파리협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세기 중반까지 배출 순제로를 향한 글로벌 연합전선 구축을 시작으로 국제사회가 '변혁의 10년'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젊은 세대는 그들보다 나이든 세대에게 옳은 일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로서 주요 배출국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가가 파리 협정에 의거 새롭고 보다 야심찬 기후행동 계획으로서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더 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용이하게 해줄 확실한 제안들을 11월에 열리는 중요한 유엔 기후변화회의 COP26에 상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